

경제발전과 공학인력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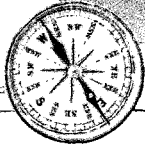
조 원 철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현재 우리사회가 가진 병폐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도 심각한 문제로 삶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의 상실과 각급 단위간의 신뢰의 상실, 그리고 상대적인 경제적 박탈감 등이 문제되고 있다.

IMF 금융관리체제를 극복해 오는 과정에서의 무리한 정책들이 시민들의 행태를 뒤 흔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정책 당국자들만 탓할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최근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적 화두가 “벤처”였음을 상기할 때, 벤처를 벤처답지 않게 시민들에게 인식시킨 공로(?)는 다분히 정책 결정 자들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벤처만이 살길이라고 분위기를 만들었으나 벤처와 관련하여 지나온 과정과 결과를 보면 벤처를 주가조작에 의한 한탕주의의 대표선수로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닌가. 또한 모두가 철저히 약육강식으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임에만, 만들기도 하고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그리고 컴퓨터 고스톱판에 목숨걸기 위해 PC방에서 밤을 지새우도록 한 공로와 성인용 음란물을 즐기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게 한 공로 역시 지대하다 할 것이다. 실상이 이러할 진데 벤처의 핵심인 전문성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버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돈은 벌어야지, 그러나 벤처의 본질인 고도의 전문성에 기초한 아이템으로 복지증진, 안전성과 편리성의 증진과 벤처인 개인의 경제적 성공이라는 키워드는 분명히 오도 되어 버리게 되었다.

어디 그 뿐인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위민(爲民)정책으로 알게 모르게 시행되어 온 연예오락의 고도생활화는 모든 어린이들이 백댄서가 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 TV에 그렇게도 많은 백댄서가 나오는지? 노래를 들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춤추는 것을 보라는 것인지? 하기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듣고 보라는 배려인지도 모르지만 대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신문은 스포츠신문 뿐이니, 그것도 연예계 기사를 보기 위해서라는 것이 70%를 넘는다니 대단히 성공한 정



책이라 판단된다. 마치 80년대에 프로스포츠로 시민들을 위로했던 것과 같은 성공한 작품이다.

또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기는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은 몇 억도 아니고 몇 십억도 아닌 몇 백억, 몇 천억, 몇 조 단위의, 그야말로 천문학적 돈의 단위가 난무하다보니 월급은 안중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싶다. 그러다 보니 벤처도 이상한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극한의 경제상황을 살아오면서 오로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동안 국가의 교육정책은 제 몇 차 교육정책이니 하면서 모두가 똑같은 놈만 생산하겠다는 평준화정책을 오히려 더 강화하며 벤처를 옹호하고 있으니 정반합이라 했던가? 모순이 창조의 원동력이라 했으나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무지의 감각적 정책이 전 시민의 우민화로 가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급 단위간에는 더 이상 신뢰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특히 개인 대 정부간에는 신뢰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오히려 불신하는 것이 정상으로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가. 불신의 구조에 의한 결과는 기계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의 대안이 전산화, 자동화, 정보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의 미래상을 염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경제발전에 따라 이공계와 같은 골치 아픈 분야는 쇠퇴할 것이 분명하다. 머리를 싸매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머리 싸맨 전문가들이 편리하게 잘 만들어 놓은 키보드만 잘 누르면 일확천금이 눈에 어른거리는데 누가 이공계로 진출하고자

하겠는가.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변화에 따라 이공계 인력의 수요는 분명히 줄어들 것이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판단이다. 우리의 구조를 들여다 볼 때 자원이라고는 오직 인적 자원뿐이니 보다 고도화된 전문 인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 특히 대학과 전문가 집단에서의 거동은 어떠한가?

내가 하는 일은 나만의, 독자적인 영역이라 생각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는 비사회적인, 가장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것이 사실 아닌가. 교육의 내용은 법칙과 공식만이 전부인양 강의되고 있으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굳이 카오스적인 사고가 아니더라도 알고 있는 법칙 이외에도 무수한 현상이 있음을 교육하고 눈에 보이는 거시적 현상과 보이지 않는 미시적 현상을 연계하려는 탐구적, 연구적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어느 한가지만으로 된 것이 있으면 시쳇말로 나와 보라고 요구하고 싶다. 그 어느 것도 그렇지 않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은 나만이 해야 하고 내 영역으로만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 특히 이공계 대학에서는 개별적 전문성을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하여 기능적 통합시스템(functional integration)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generalist도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전문성은 관리직의 횡포(?)로 그 가치가 격하되어 모든 좋은 결과는 관리자들에 의한 것으로만 되고 잘못된 것은 책임만 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봉급의 차이는 상위직으로 갈수록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식책자체 마저도 전문직에게는 바늘구멍으로 되어 가고 있으니 아직도 “사농공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니 사농공상이 보다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IMF금융관리체제에서 맨 먼저 된서리를 맞은 것이 전문가들이었음을 기억하면서 누가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날밤을 지새울 것인가. 이처럼 사회적 인식이 변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어찌면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인지도 모르겠다.

전문성에 기초해서 고도로 분업화하고 그것들을 통합하여야 하는 고도의 통합정보화 사회를 이루어 가면서 요소기술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함은 무서운 현실로 되어가고 있다.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없다면 조만간 전문인력의 부족이라는 공황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상식적인 전문용어 몇 개만 사용할 수 있으면 기술관리공직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고 법정에서의 변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한 전문성이 성장할 공간은 점점 좁아질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형성이 누구의 탓일까? 우리 쟁이들의 사고에서 일차적인 문제를 찾고 싶다. 속 좁은 리더십의 결과는 아닐까? 전문성만 강조했지 기능적 통합시스템 개념에 대한 교육의 부재와 기획, 관리능력을 배양하지 않은 교육과정은 어떠한가? 탓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물량적 풍부와 더불어 눈과 손가락만 움직이는 퇴화과정으로 가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우리 쟁이들이 선도해야 할 것이다. 전문성 추구를 통한 노력과정이 가장 건강한 삶의 행태임을 인식하고 알려져서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사회, 경제제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